

투데이

파리의 밤 K팝 열광... 유럽 한류 실감난다

공연 4시간 전부터 관객 몰려 “소녀시대·동방신기 보자”

파리=서민정 객원기자

10일 오후 3시, SM 타운의 첫 유럽 공연이 실현되기 4시간 전, 파리 북동쪽 끝에 위치한 다목적 문화 공연장 ‘Le Zenith(르 제니트)’는 수 천명의 함성으로 가득했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프랑스 인접 국가들은 물론 폴란드, 노르웨이 등 비교적 먼 나라 국가들도 눈에 띄는 한류팬이었다. 그녀는 태극기의 의미를 알고 있는나는 질문에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남의 조화, 우주의 원리를 그린 것이라고 들었다”고 답했다. 그는 “혹시나 입장하는 슈퍼 주니어를 볼 수 있을지 싶어 새벽 4시부터 공연장을 찾은 친구들도 있다”고 말했다.

포르투갈에서 온 조아오(21)는 “소녀시대를 보기 위해 한 달간 아르바이트 돈으로 비행기, 공연 티켓과 파리 여행 경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소문으로만 들던 ‘유럽 내 한류 열풍’을 두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1회차 공연이 예매 15분 만에 매진됐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 ‘파리 한류 교민들이 대다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은 기우였다. 이날 8시간 동안 공연 현장에 머무르며, 공연 스태프, 기자를 제외한 한국인은 단 한명도 보지 못했다. SM 타운 관계자는 “이날 공연 관객의 98%는 유럽 관객이었다”고 밝혔다.

오후 7시 30분, SM 타운의 소개 영상과 함께 공연이 시작되자 공연장은 7000여명이 지르는 엄청난 함성으로 가득찼다. 공연장 내 소음 측정 장치는 110 데시벨을 기록하고 있었다.

공연은 4시간 동안,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에프엑스, 샤이니가 준비한 30여개의 히트곡과 다양한 영상물로 채워졌다. 운유가 베르디 오페라 ‘투란도트’의 아리아를 부르며, 남자 멤버들이 안전장치를 허리에 달고 공연장을 날아다니는 등의 팬 서비스도 이어졌다.

한국어 가사와 안무를 따라 부르는 유럽인들을 보는 것은 참으로 이색적인 경험이었다. 이들은 슈퍼 주니어 멤버 김희철이 무대인사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마이크를 건네자 “사랑해요 김희철, 우우빛깔 김희철”을 반사적으로 외치는 ‘센스’도 보여줬다.

공연이 끝나자 곳곳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소녀들이 발견됐다. 감격에 겨운 눈물이었다. 중국계 프랑스인인 케빈(22)은 “지난 5년간 이곳에서 본 수많은 공연 중 최고였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그는 “조명, 무대 장치, 영상의 완성도가 미국 탑스타의 공연의 그것 못지 않았다”며 “SM Town veut conquerir le monde”(SM 타운이 세계를 정복하러나보다)고 현장에서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작성했다.

기자회견까지 모두 끝난 새벽 1시 무렵에도 아쉬움에 공연장 주변을 배회하는 팬들이 발견됐다. 그동안 반신반의하던 ‘유럽 내 한류 열풍’의 실체를 확인한 현장. 아직 중국, 동남아권의 인기 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소수의 마니아층도 아니었다. 앞으로 유럽에 강한 한류가 몰아친다면, 오늘 공연은 그 ‘계기’, ‘긍정적 출발’이 될 값진 순간이었다.

한국어 가사와 안무를 따라 부르는

10일 오후(현지 시각) SM 타운의 첫 유럽 공연장소인 프랑스 파리 르 제니트 공연장 앞에서 수천여명의 유럽팬들이 소녀시대,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등의 공연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며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파리=서민정 객원기자



10일 오후(현지 시각) SM 타운의 첫 유럽 공연장소인 프랑스 파리 르 제니트 공연장 앞에서 수천여명의 유럽팬들이 소녀시대,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등의 공연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며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파리=서민정 객원기자

이희호·권양숙 여사 2박3일 동반여행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인 권양숙 여사가 11~13일 2박3일 일정으로 함께 여행길에 오른다.

두 사람은 11일 전북 무주군에서 진행되는 ‘반딧불 축제’ 폐막식에 나란히 참석한 뒤 12일에는 충남 태안 안면도로 자리를 옮겨 휴식을 취한 뒤 13일 천리포 수목원을 둘러보고 상경할 예정이다. 이번 여행은 이 여사가 “노 전 대통령의 서거 2주기(5월23일)를 치르면서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면서 권 여사에게 반딧불 축제에 동행할 것을 제안해 이뤄졌다고 한다. 두 사람은 서거 1주기 후인 지난 6월에도 나란히 반딧불 축제에 참석했다.

12일 안면도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안희정 충남지사 주재로 만찬도 잡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두 사람의 여행 소식을 들은 안 지사가 “두분을 함께 모시고 싶다”고 건의해 마련된 자리로, 김 전 대통령 최측근이었던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여행에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과 이해찬 전 국무총리, 정세균 최고위원, 권오갑 전 민주당 고문과 신 건 의원 등 두 전직 대통령과 함께 했던 핵심인사들의 부인들도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UEA 광주정상회의 참가도시 65개로 늘어

광주시는 UEA(도시환경협약) 광주정상회의 유치단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8일까지 오세아니아 및 인도, 유럽 등을 방문, 유치활동을 펼친 결과 벨기에와 네덜란드 등 6개국에 새로 참가를 약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정상회의가 4개월여 남은 이날 현재 참가도시는 37개국 65개 도시로 늘어났다.

이번에 정상회의의 참가를 약속한 도시는 벨기에 브뤼셀과 네덜란드 알메르, 레이든 그리고 독일 프라이마르크레와 덴마크 코펜하겐 등이다. 또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광주시 기업유치단과 함께 방문한 강은태 시장에게 직접 참가의사를 밝혔다. 유럽 현지를 직접 방문해 유치활동을 펼친 광주정상회의의 김귀곤 기획위원장은 “세계 각국 도시들이 대부분 환경문제에 고민이 많고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인 도시환경지표, 도시 정책개발체계(CDM) 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참가도시는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UEA광주정상회의의 조직위원회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시청에서 제2차 조직위원회 회의를 열고 그 동안의 준비상황을 중간 점검할 예정이다. UEA 광주정상회의는 광주시, UNEP, 샌프란시스코시 3자가 공동으로 주최해 오는 10월11일~1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Green City, Better City’를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홍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시의원들 “현대 도서관’ 우리 區로”

아산재단 건립 기부 소식에 때아닌 유치 경쟁

광주시의원들 사이에 최근 때아닌 도서관 유치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몽준)이 광주에 건립, 기부하겠다는 도서관(광주일보 6월3일자 2면)을 자신의 지역구로 유치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도서관 유치 경쟁은 아산사회복지재단이 오는 2013년까지 1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들여 건립한 뒤 광주시에 기부하기로 의사를 밝힌 뒤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도서관 유치를 나선 의원은 이은방(민·북구 6) 부의장과 김영남(민·서구 3) 행정자치위원장, 허문수(민·광산 2) 의원 등 3명이다. 이 부의장은 면적 대비, 인구 대비

를 따져볼 때 북구의 도서관 숫자가 너무 적다는 점을 내세워 새 도서관을 자신의 지역구인 북구 건국동에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의장은 도서관 유치를 위해 시정 간부들을 접촉하는 한편 건국동 일대의 시유지 또는 국유지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서구에 시립도서관이 단 한 곳도 없어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라며 “특히 공공도서관 열람석의 격차가 동구 대비 10분의 1수준에 불과하고 장서수도 1인당 0.63권으로 동구지역과 8.1배 차이가 나고 있는 만큼 새 도서관

은 서구 풍암동 중앙공원 내에 신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도서관과 박물관 등 공공 문화기반 시설이 광산구에는 66개소에 그쳐 북구 113개, 서구 85개, 동구 84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아산사회복지재단이 기부 채납하기로 한 100억원대 도서관은 광산구 우산동 지역에 건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각 자치구별 도서관 현황을 살펴보면 동구와 광산구가 각 4곳, 서구와 남구 각 3곳, 북구 2곳 등이다. 열람석 규모로 따지면 동구가 3792석으로 가장 많고, 이어 북구가 3750석, 남구 3343석, 광산구 1962석, 서구 1183석 순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그린피스 영광원전 앞 반핵 시위

세계적인 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가 영광원전 앞 바다에서 반핵 시위를 벌인다.

12일 광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그린피스는 ‘핵 없는 한국’ 캠페인의 하나로 환경 감시 선박인 ‘레인보우 워리어호’를 타고 14일 오전 10시께 영광 원전 앞 15km 지점에 도착, 영광 원전 배수구 앞 해상에서 반핵 퍼포먼스를 벌일 예정이다. 이들은 21일까지 월성, 울진, 영덕, 삼척 등 국내에서 가동 중인 모든 원자력발전소와 신규 발전소 후보지를 돌며 원전 반대운동을 벌인다. /양수현기자 yang@

해경 15일 여수 신청사 착공

해양경찰학교가 여수 이전을 위한 신청사 착공에 들어간다.

12일 전남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따르면 해양경찰학교는 오는 15일 여수시 오천동 해양경찰학교 신축부지에서 권도열 국토해양부장관과 박준영 전남도지사, 모강인 해양경찰청장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개최한다. 해양경찰학교는 230만5468㎡부지에 연면적 8만1713㎡ 규모로 2769억 원을 들여 오는 2013년 말까지 건립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뉴스 브리핑

전남 친환경농업 직불금 5만7천농가 신청

전남도는 12일 도내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로부터 직불금 신청을 받은 결과, 5만7109농가가 4만8673ha에 197억9000여만원의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12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전국 신청량 8만7467ha의 55.6%를 차지한다.

도 내달 23일까지 가축 매몰지 특별점검

전남도가 장마철을 앞두고 다음달 23일까지 ‘가축 매몰지 특별점검’에 나선다. 전남도는 점검 기간 내 매몰지 비닐 피복상태, 침출수 발생 여

부, 배수로 정비 상태, 매몰지 함몰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미비사항 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보완 조치하도록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경매투자

- 공동투자자 및 자본주 모집
-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장
- 지상권등 특수물건만 투자
- 50%미만 물건만 투자

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OC & S Investment Institute
H·P 011 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1157-22번지
E-mail : csg5000@hanmail.net

전남·북 출장파티 전문업체

출장뷔페·도시락·식판급식·성당 교회결혼식뷔페·야외결혼식뷔페
철술/팔순잔치·체육대회·야유회
종친회·기업체 각종행사

www.party-food.co.kr

www.ah-english.com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준비
압구정영어가 한다!

★호주 어학연수·취업 상담★

압구정 1:1
원어민 전화영어·화상영어
070-7433-0594

조선이공대학

2011년 소상공인지원사업
국비지원 성공창업
패키지교육

조선이공대학 산학협력단과 ‘프랜차이즈서비스창업과’가 공동 진행하고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원이 지원하는 무료창업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회차	일 자	교 육 과 정 명	교육인원
1	6.20~7.1	월수익 1천만원 이자야 주점 창업반	20
2	7.11~7.22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한 1인칭조기점 창업과정	20
3	8.8~8.20	남도화동음식 상품화와 성공창업과정	20

프랜차이즈 서비스 창업과 NAVER 카페 bxbx

정 원
- 각 과정별 20여명 선착순 모집

교 육 비
- 무료 (단, 현장학습비 5만원 별도)

특 전
- 교육 이수자는 중소기업청 국가정책자금(4.25% 변동금리) 우선지원대상 및 소상공인지원원장 수료증 수여

교육 문의 학과실 (062)230-8410
cafe.naver.com/bxbx

공무원 특별자금

무조건 기금서비스 · 개인·가족·재산관리 철저

- ◆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군무원
- ◆ 대출금액 | 2백만~4천만원 (무보증/무담보/무조회)
- ◆ 대출금리 | 1년 6%정도(천만원당 월이자 5만원선)
- ◆ 대출기간 | 1년~10년(본인 선택 연장 가능)
- ◆ 과다대출 | 연체(등금미달)자도 해당

고금리 대출 이용 중 이시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한도 살펴계약을 선순위 대출시세 90%에서 선순위 대출금 차감한 금액까지 가능
대출금액 선순위 - 연 5%~7.5%(은행금율) / 후순위 - 월 1.2%~3%

국민금융 대표 1544-9430 담당 010-5554-2100

공무원 대출

무방문 · 무담보 · 무보증 · 무조회기록

- 대상 - 공무원, 군무원, 교직원
- 금액 - 3백만 - 4천만 (추가대출가능)
- 금리 - 연 5%~7% (천만원 월이자 5만원 미만)
- 기간 - 1년~10년 (회차기간까지 연장가능, 본인선택)
- 사금융이용자 제1금융권으로 전환가능 (과다대출 포함)

APT 한도: KBS세~80%+a (60%) 전세권 한도: 보증금의~80%
담보대출 금리: 연 3.93%~ 담보대출 금리: 연 5.9%~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대출비율은 변동 될 수 있음★

흥국금융 대표 1544-5248 담당 010-7112-3135